데스크 시각

275g 꿈의 공, '보치아'를 아시나요?

송기동
체육부장

지난 4~6일 호남대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에서 하이트진로배 전국 장애인 보치아 대회가 열렸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인 보치아(boccia)는 일반인들에게 낯설다. 아마 처음 들어본 이들이 많을 것이다. 대회 기간 동안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인 300여 명의 선수들이 서로 기량을 겨뤘다.

대회 마지막 날인 6일 BC 1종목 결승에 진출한 광주 노영진(21·동강대 사회복지행정과 1년)이 눈길을 끌었다. 상대는 국가대표이자 국내 랭킹 1위인 김명수(28·충북 비상드림).

국내랭킹 24위인 노영진은 상대의 노련한 경기진행에 밀려 1~3엔드까지 1-3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노영진은 마지막 4엔드에서 4개 남은 공을 하나하나 신중히 던져 표적구에 가까이 붙은 상대의 공을 튕겨내면서 4-3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보치아에 입문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딴 금메달이었다. 우승을 확정지은 후 노영진은 두 주먹을 힘껏 쥐고 환호했다. 그런 아들을 보며 뒤에서 휠체어를 잡고 있던 어머니 이향미(45)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광주일보 7월8일 자 15면〉

뇌성마비 장애인 스포츠

어머니 이씨는 불과 생후 8일 후 아들의 이상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핵(核)황달'이라는 진단을 받고 온몸의 피를 바꾸는 교환수혈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아들은 뇌성마비 장애를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어머니는 "살려만 달라"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15년여의 세월이 흐른 2007년 어느 날, 광주 은혜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보치아 선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보치아를 접한 아들이 보치아의 매력에 끌린 것이다. 그때부터 올해까지 6년째 모자는 한 팀이 돼 전국 대회장을 찾아 경기에 나서고 있다.

어머니 이씨는 뇌성마비 1등급인 아들의 운동 후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물리치료보다 몸이 좋아졌다. 무엇보다 보치아를 통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갈 데'가 있고, '할 게' 생겼다. 보치아 국가대표라는 꿈과 목표가 생겼다."

보치아 명칭은 '보스'(boss)를 뜻하는 라틴어 '보티아'(bottia)에서 유래했다. 국제뇌성마비 스포츠 레크리에이션협회(CP-ISRA)에서 1980년대 초 처음 소개해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경기가 치러졌다. 우리나라는 보치아 강국이다. 1988년부터 2012년 런던 패럴림픽까지 7연패를 달성한 효자종목이다.

전용 연습장과 관심 절실

경기는 12.5m×6m 크기의 나무바닥에서 진행된다. 게임 규칙은 흰색 표적구를 먼저 던져놓고 선수들이 야구공보다 약간 큰 적색·청색 공을 각각 6개씩 규칙에 따라 번갈아가며 던지거나 굴려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한다.

경기는 장애 정도에 따라 BC1~BC4 종목으로 구분된다.

BC1 종목 선수들은 휠체어에서 자칫 떨어질 수도 있어 끈으로 허리를 묶는다. 또, BC3 종목 선수들은 손으로 공을 집을 수가 없는 중증장애 때문에 경기 보조요원의 도움을 받아 마우스 스틱이나 헤드 스틱, 미끄럼틀 모양의 홈통을 사용해 공을 굴린다.

현재 광주시 장애인 보치아연맹에 등록된 선수는 50여명. 하지만 전용 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은 광주 은혜학교 시설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양가죽 재질로 만든 보치아 공과 홈통 등 장비 구입비용도 부담스럽다. 때문에 탁구와 양궁에 이어 실업팀 창단에 대한 바람도 크다.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애정어린 관심도 절실하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공 하나를 던지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휠체어에 앉은 채 근육 강직 때문에 제때 공을 놓을 수 없어 수십 차례 시도 끝에 성공하고, 입에 스틱을 물고 홈통의 공을 굴리는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중증장애를 극복하고 275g의 공 하나 하나마다 자신의 꿈과 도전정신을 담아 경기에 임하는 광주 보치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song@kwangju.co.kr

은펜칼럼

다문화가족과 만들어가는 문화콘텐츠

류동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워어후~~워후, 워어후~~워후" 이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캄보디아 개소리다. 한국에서는 개가 "멍멍, 컹컹"하고 짖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개소리를 이렇게 표현한다.

필자가 함께 추진했던 "엄마 찾아 캄보디아" 친정방문 사업이 시민들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그 사연이 노래로 만들어졌다.

캄보디아출신 여성의 인터뷰로 가사를 만들고, 바위섬 작곡가 배창희 남부대 실용음악과 교수가 작곡을 해서, 남부대 학생이 노래를 불렀다. 비행기 타고 먼길을 간 손주가 할머니를 피해다니다가 할머니가 안고 들려주신 캄보디아 개소리에 아이가 좋아하면서 함께 어울린 사연, 친정 간 첫날밤에 자정이 넘어 30여 분 동안 짖어대는 개소리에 식구들이 아무도 안 나가 물어보니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빠가 딸 보러 오셨는가 보다"고 이야기를 해 "밤새워 짖어대는 개소리, 아빠가 오신 건가요"라는 가사가 들어갔다.

바로 캄보디아 개소리를 하이라이트로 노래를 만들어 광주시민들의 사랑과 열심히 살아가는 다문화 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 아시아를 감동시키는 문화콘텐츠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심양에서 오신 분에게 식당 예약을 하면서 "새우볶음밥 4개"를 준비해 달라고 전화를 하고서 가보니 "제육볶음 4인분"이 준비되어 있었다. 당황해서 물어보니, '새우볶음밥'을 '제육볶음'으로 들었던 것이다.

한참을 웃으며 다문화 가족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고 제육볶음을 맛있게 먹었다. 중국에서 오신 이분과는 "아빠 찾아 경운기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노래를 해설해서 시민들에게 가르쳐 주고, 기금을 만들어 친정에 계신 아버지께 경운기를 선물해 드리는 프로젝트다. 또 중국을 다녀와서 "아빠 찾아 경운기"라는 노래가 나오고, 하이라이트는 중국 경운기 소리로 잡으려고 한다. 중국 경운기는 "땟땟땟땟" 하고 소리를 낸다고 한다.

광주와 전남에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 분들은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일구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멀리 타향에 와서 어렵고 힘든 적응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면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아시아문화도시를 앞두고, 다문화 가족들과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로 연결한다면 아시아를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광주가 창조하는 새로운 한류 문화는 아시아와 어울리면서 만들어가는 감동 콘텐츠로 지역 관광 산업과 문화산업 발전, 지역 기업의 아시아 진출 등 경제발전과 연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여 양산동에 개소를 한 '시 다문화 가족거점센터'와 기아자동차와 함께 추진한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면서, 이러한 사업 속에 좋은 문화콘텐츠 소재를 발굴하면 좋겠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창의적인 멋진 생각으로 하루 시작한다면

김정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항상 우리는 아름다운 희망의 꿈을 꾸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세워 혼을 담아 정성스레 가꾸며 나가느냐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그 꿈속에서 꾸었던 상상들을 그저 흘러버리는 시대가 아닌 이제는 나만이 꾸었던 상상을 현실로 이끌어 내야 하는 창조경제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뚱맞은 생각들을 주변 세상의 변화가치와 융·복합시키는 조화능력을 통해서 생산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다가오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창의적인 멋진 생각으로 여유롭게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나갈까 꿈꾸어 본다.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과 목표를 향해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 있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유일한 최고 가치를 인정하는 자존감에서 출발하여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하게 믿는 자신감(self-confidence)"과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가치에 대해 깨닫고 자신답게 느끼는 자존감(self-esteem)"에 대해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자신감 보다는 자존감으로 충만되어 있을 때 업무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가치에 있어 더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에 대해 잃어버리고 주변과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기도 한다.

먼저 나 자신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치라는 포맷이 중요하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향하여 또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의문 속에서도 어찌하든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정체성을 붙들어야만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긍정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늘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나는 가장 멋지다" "난 좋은 사람이다" "난 소중해! 분명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라.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번득이는 새로운 생각들이 펑펑 쏟아질 것이다. 우리 한번 믿어보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 긍정운동에 동참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10년 전에 필자인 나는 우연히 "사무엘 울만"의 "청년"이라는 시 속에서 언제나 나이와 상관없는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을 품은 창의적 사고에서 가능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우린 생각이 젊어야 자신감과 열정이 생기고 번득이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의미 속에서 세월이 주는 "Time Age"보다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얻어지는 "Mind Age"로 생활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활기가 넘치게 되고 자신감과 행복감에 충만하여 늘 멋지고 기쁜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모두 나이와 관계없는 청년 같은 열정과 긍정의 마인드로 행동한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소통하게 되는 호감형이 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다수 창조적인 생각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적인 생각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해 보는 것이다.

창조적인 힘을 키우려면 먼저 질문력, 관찰력, 정보력, 결합력, 역발상력, 표현력, 도전력, 몰입력 8개 Power를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눈도 한가지인 듯하나 변화를 향한 바라봄의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특별한 의식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See관점"과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관심 있게 바라보는 "Look관점", 원리와 원칙, 변화를 향해 그 대상을 상세하게 관찰하여 보는 방법인 "Watch관점"이 있다.

이러한 "Watch관점"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변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행복한 창조도시의 주인공들의 멋진 모습들을 그려볼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주먹구구식 전력수급계획 전면 수정해야

정부가 마련한 6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 가동 정지에 따른 비상상황과 수명 완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함시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전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잡는가 하면 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8기 전부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작성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2027년)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원전의 전력수급 분담률을 올해 25.6%를 시작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2027년에는 22.7%로 설정했다. 수급계획은 2년마다 작성되며, 전력수요 예측과 공급대책 등 전반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세우면서 한빛(영광)원전 1·2호기 등 설계 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8기를 모두 포함시킨데다 재가동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력난을 이유로 무리가 있어도 원전을 계속 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90%가 넘는 원전 가동률을 전제로 전력수급 계획을 짰다는 점도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예고 없이 여러 기가 동시에 멈추면 20% 수준으로 설정된 전력예비율에 곧바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가동률을 60~70% 수준으로 잡아 비상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등 원전 선진국들과는 정면 배치된다.

이 계획에 석탄화력발전 건설이 12기(1580만㎾)나 잡혀있는 것도 문제다. 석탄화력은 원자재 수입에 따른 부담과 환경오염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선 이미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는 전체 전기 생산량의 2.3%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력난을 구실로 주먹구구식으로 짠 수급계획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되 친환경에너지로 공급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 있다.

성범죄 '우려 지역'에 CCTV 하나 없다니

여름철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성범죄 '우려 구역'에 치안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인 보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범지역임에도 방범 CCTV 하나 설치돼 있지 않고,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도 관리지역에서 제외돼 범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에서 여름철(6~8월) 발생한 성범죄는 400건에 이르고,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639건이 일어났다. 이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성범죄의 두 배 수준으로, 이 기간 경찰의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찰은 광주시 북구 광주역 일대 모텔 운집지역과 두암동 모텔·원룸촌 일대 등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방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치안인프라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성범죄 우범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산구 우산동 성폭력 관리구역과 수완지구 관리구역에도 CCTV가 없어 밤거리를 다니는 여성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전남지역도 실정은 비슷하다고 한다. 광양시내 성폭력 관리구역에 설치된 CC-TV는 41만 화소에 불과해 유사시 범인의 식별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여기에다 유흥가가 밀집한 목포시내 평화광장 일대도 성범죄 우려가 크지만 아예 경찰의 관리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성폭력 예방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과제 가운데 주요 분야로서 경찰과 지자체 등 당국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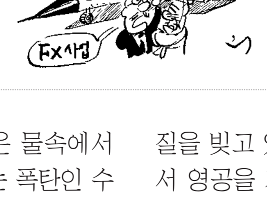
경찰과 자치단체는 CCTV 등 감시 장비를 서둘러 보강하고,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상시 배치 및 순찰을 강화해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여성들도 심한 노출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 심야에 외출을 삼가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조상도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 제작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서방과 치른 최초의 전쟁인 병인양요를 경험한 흥선 대원군은 소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탄조끼' 개발에 착수한다.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된 제품이 '면포를 13장씩 앞뒤로 겹쳐 바느질한' 면제배갑(綿製背甲)이다. 이 조끼는 1871년 신미양요에서 실제로 미군의 총알을 막아내는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입으면 덥고, 불에 약하며, 물에 잘 젖는 약점이 발견되면서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면제배갑



실전에서 사용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대원군은 물속에서 적의 군함에 장착할 수 있는 폭탄인 수뢰포, 쇠로 만들어진 적의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화륜철선 등을 만들어내며 신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첨단 무기 제작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건 장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669년 겨울, 신라에 사신을 보내 쇠뇌(쇠로 된 발사장치가 달린 활) 제작 기술자인 구진천을 당나라에 보내 줄 것을 요구한다.

당 고종은 무거운 벌로 위협하며 1000보를 나가는 쇠뇌를 만들어주도록 요구했지만, 구진천은 재료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겨우 30걸음, 60걸음밖에 나가지 않는 엉터리 쇠뇌를 만들어 바쳤다. 구진천이 제 기술을 모두 발휘했더라면 이듬해인 670년 3월 시작된 '나당전쟁(羅唐戰爭)'에서 신라가 승리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기 위해 추진하는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적국에 맞서 영공을 지켜야 할 항공전력이 미흡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제2의 대원군, 또다른 구진천이 너무도 아쉬운 시점이다. /홍행기 사회1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